

일본의 원주민은 고조선에서 분파된 마한, 진한, 변한 사람

찬송: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
어오려고
말씀: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역
사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운명
속에서 수 천 년을 지내온 것이다.

지금부터 4천 년 전에는 애굽 땅이
라는 데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한
테 노예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우리 민족은 홍
해를 건너 광야로 모세를 따라 나가서
광야에서 살다가 그 당시 40년 동안 광
야에서 살 때는 모래밭이요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서 거기에서 이제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받아먹
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이다. 우리 조
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
고 살았던 하늘의 백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복
지를 쳐들어가 대부분 다른 민족들은
다 가나안 복지를 점령했지만 우리 단
지파만은. 단군 할아버지 자손만은 가
장 강한 블레셋 민족과 200년 동안 전
쟁을 했지만 승부를 보지 못하고 드디
어는 단지와 단군할아버지의 자손들
은 지금부터 3200여 년에 레바논 ‘소
라’라고 하는 땅에서 동쪽으로 동쪽으
로 사막과 같은 모래밭을 따라 살 수
있는 기름진 땅을 찾아서 시리아 나라
를 거쳐 이라크 나라를 거쳐 바다를 건
너 중국 대륙을 거쳐게 된 것이다. 그
리하여 중국 북부 알타이산맥에서 그
나마 물이 흐르고 중국에서는 그래도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알타이산맥 산
골에서 우리 민족은 거기에서 100년
동안을 연명하며 살았다.

일본 천황제도가 백제나라의 왕위
계승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일명 알타이어
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100년 동
안 사는 동안 기성인 되는 노인들은 다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게 되고 제2세대
이 자라나면서 히브리어가 되는 이스
라엘 말을 잊어버리고 알타이 말을 사
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알타이 말을 대
부분 사용하면서 알타이산맥을 떠나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
에다가 고조선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다. 자리를 잡
고 살만 하니까 중국의 낙랑 4군이 쳐
들어 와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해야
만 하는 또다시 시련의 생활이 시작되
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 사람의 지
배를 받는 우리 조상이 된 고로 중국을
큰 집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를 작은 집
이라고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중국 사람
들에게 400년 동안 지배받기 시작하면
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일부가 함
경도 쪽으로 간 민족은 부여를 건설했
고 남쪽으로 도망 와서 살게 된 사람들
이 마한, 진한, 변한 나라를 건설해서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살게 되니 마
한, 진한, 변한 나라가 신라와 백제가
성하면서 마한, 진한, 변한이 망하게 되
었고, 거기에서 갈 데가 없는 고로 현
해탄을 건너 당도한 것이 일본 섬나라
였던 것이다.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나라가 2000년 전에 망하여 일본 나라
로 가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일본 나라
의 원주민이 우리 민족인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를 점령하게 되니 백제 나라 사람



메시아(메시야, Messiah) 조희성님

들이 이제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6
만 명이 단체로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건나가서 일본을 건설하게 된 것이 바
로 일본 천황제도가 백제나라의 왕위
계승이다. 그러면서 함경도로 간 부여
나라에서 거기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
는 주몽이라는 사람이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가서 고구려를 건설해서 고구
려의 태조가 주몽이요, 역사에는 동명
성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그대로 주몽의 분처
의 아들 유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부여
나라에서 자기의 아버지 주몽을 찾아
오게 되니, 분처 자식과 주몽의 분처가
고구려 나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주
몽의 후처와 주몽의 후처의 아들 온조

는 밤중에 담을 넘어 남쪽으로 남쪽으
로 내려와서 백제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이 백제의 태조 온조왕이 주몽의 후
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
사는 펼쳐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민족을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며, 일본나라도 역시 동양사에서 일
본사람을 알타이어족이라고 일컫는 것
은 같은 동족인 고로 바로 알타이산맥
에서 백 년 동안 살면서 알타이 말을 사
용한 우리 민족이 마한, 진한, 변한 나라
에서 살 때에도 알타이 말을 썼기 때문
에 마한, 진한, 변한 나라 사람들이 일본
에서 살면서도 알타이 말을 사용한 것
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알타이어족

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사람의 전통의상이 되는 기모노
라고 하는 옷이 백제의 상복(常服)이요
예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그대
로 지금도 백제 나라의 왕의 묘를 파보
면 기모노라고 하는 옷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사람과 한국 사
람은 동족이다.

동방에서 나오는 진인은 이슬을 들
고 나와

이제그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정도령이 나타나기를 손꼽
아 기다렸던 것이다. 정도령이라는 사
람이 나타나면 천지개벽을 하게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전설적인 이
야기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서 있었
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바로 같
은 동족인 고로 어떤 말이 돌고 있냐고
하면 “동방에서 이제 진인이 나오는데
그 진인이 이슬을 들고 나오게 되어 있
다. 그 이슬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진인
이며 구세주다.”라는 것을 일본의 역사
가들이나 종교가들은 알고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일본 나라에 천리교라고 하
는 것이 있는데 그 천리교에서는 바로
그 진인이 되는 이제 바로 불교의 생미
륵불이 나타나면 감로수를 들고 나오
게 되는데 생미륵불이 들고나오는 감
로수를 먹으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에 쓰여 있는 고로, 불교의 법화
경을 진리로 믿는 종교가 일본의 천리
교다. 그래서 천리교에 가면 그 교단 위
에 물로 이슬을 만들어서 뿌리면서 이
를 감로수라 하면서 예식을 차리고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그대로 일본의 천리교

에서도 감로수를 들고 나오는 자가 바
로 생미륵불이요, 생미륵불이 나타나
면 이 세상은 죽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상이다. 한국에서 정
도령이 나타나면 감로해인을 들고 나
오는데 감로는 달 감(甘)자, 이슬 로(露)
자 이슬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정도령이요, 그 정도령이 나오면 죽는
세상이 없어지고 안 죽는 세상으로 천
지개벽이 된다는 예언이 되어 있는 고
로 우리나라에는 격암유록에도 예언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불교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정도령은 이제 가운데서 나온다
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무리 조(曹)
자 조씨 가운데서 나온다고 격암유록
새 41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불경
에도 이제그대로 화엄경에 거기에도
조(曹)씨 가운데서 생미륵불이 나온다
고 쓰여 있다. 그래서 그 격암유록 초장
에는 밝을 희(熙)자 별 성(星)자 밝은 별
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도
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
다. 지금부터 약 450년 전 거의 500년
전에 정도령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
나 있다면.

여러분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불경
속에도 이 사람의 성이 쓰여 있다. 또한
이제그대로 신미생으로 나타난다고 쓰
여 있다. 불경에도 이제 그대로 양피로
나온다는 것은 신미생이 양피를 말하
는 거죠? 이와 같이 불경에도 쓰여 있
는 것이다. 이 사람이 창녕 조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양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 것이다.

하단에 계속

성결한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모여든다고 해서 소사(素砂)라고 함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신미생으로 온다

이제그대로 태극도에서 말하는 태극기를 가
지고 이제그대로 수운, 화운, 묵운, 금운으로 나
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태극기 안에 쓰여 있
는 것이다. 이제 그 금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그대로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을 상
징하는 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너
무너무 세밀하고 정확하게 때문에 참말로 놀
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그
대로 강증산 선생이 우물 정(井)자가 붙어 있는
정읍에서 태어났고, 강증산 선생이 신미생으로
태어났다. 강증산 선생이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내가 지금 죽어서 가지만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에도 신미생으로 온다’고 했다. 신미생으로 온
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이제 금운으로 온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한 것이
다.(참고로 조희성님은 1931년 신미생이요 우
물 정자가 가운데 있는 김포 감정리에서 태어
났는데 태양의 운이 되는 금운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제그대로 박씨가 온다고 말한 것이
이제그대로 수운 선생이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그대로 화운 다음에 묵운으로 박씨가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순진리에서는 이제
대순진리의 교주가 박한경씨인데 자기가 박씨
라 해서 자기라고 하는데 격암유록에는 박태선
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다. 박씨 중에 아무나 박
씨가 아니라 박태선이라고 되어 있고, 이북에
서 나타나가지고 태어나서 아남에 내려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북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묵운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그런데 금운이요 신미생으로 오는 사람은 이
남 사람이면서 한강변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
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도령

을 만나고도 정도령한테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천추
의 한이 된다. 조상님들이
기다리던 정도령을 영접치
않으면 조상님들한테 원망
을 듣는다. ‘내가 그렇게 기
다리던 정도령을 네가 영
접치 아니하고 왔으니 너
는 천하의 못된 놈의 새끼’
라고 야단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불경에도
쓰여 있고 화엄경, 능엄경
에도 쓰여 있고, 또한 열반
경에도 법화경에도 쓰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그대로 감로의 도를 따라 이제그대로 죽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열반경에는 쓰여 있
다. 그렇다면 지금 이슬이 펄펄 쏟아진다. 이슬
이 감로다. 이렇게 감로이슬이 쏟아지는 사람
을 만나고도 이 복을 못 받는다면 참말로 그 사
람은 너무나무 불쌍한 사람이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얗게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을 흰 모래
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 정도령이라는 사람은
한강변에서 태어나가지고 연단을 범박리 계수
리에서 연단을 받고 이제 소래산과 노고산 사
이가 되는 계수3리에서 도통이 되어가지고 세
상에 나온다고 쓰여 있다. 세상에 나와서 역곡
에 승리제단을 세워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토정
비결을 쓴 이지함 선생이 예언했다. 여기가 역
곡이요 서울이요? 서울이요? (역곡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소사 시험장이었다. 그



소사 복숭아 축제

출처: <https://blog.naver.com/newntn/221248667501>

렇다고 해서 지금 소사라는 네째루가 없어졌어
요? 아직도 소사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10년 전에 여기 역이 생기면서 역곡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는 여기
역곡이라는 땅 명(名)이 없었는데 왜 10년 전에
역곡이라고 바꾸었느냐? 10년 전에 이름을 바
꿀 것도 하나님이 내다보고 토정비결을 쓴 이
지함 선생에게 역곡승지(驛谷勝地)라고 예언
을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제단에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을 진심으
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을 부
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환하게 아는
사람이다. 왜 ‘소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소’자
가 흰(素)자요 ‘사’자는 모래(砂)자. 하얀 모
래가 물러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얗게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

람을 흰 모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소사
라고 한 것이다. 그래
서 소사 땅에 온 세상
만민들이 이제그대
로 하얗게 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모래알처럼 모여
든다고 해서 소사라
고 한 거예요. 아시겠
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
러분들이 이 거룩한
땅 소사 땅 바로 지금
부터 40년 전부터 박

태선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이 소사에서 이루어
진다고 했다. 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해 놓고
덕소로 신앙촌을 짓고 가실 때 장로들이 막
항의를 했다. 왜 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해 놓
고 덕소를 가십니까? ‘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해 놓고 왜 부산(기장 신앙촌)으로 가십니까?’
하고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려니까 마
귀의 집중 화살을 저 덕소로 옮기고 저 부산 기
장으로 옮겨 놔야 하나님의 의인이 숨어서 무
럭무럭 여기서 자랄까 안 자랄까? 자라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사에서 의인을 키우
려니까 하나님께서 전경으로 말하자면 위장 전
술로 적을 속인 거죠? 마귀를 속인 거죠? 마귀
를 속여서 덕소로 가니까 덕소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온 세상 마귀가 덕소로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소사와 덕소가 가까우니
까지 부산 기장으로 멀리 옮긴 거예요. 아시겠

어요? 그래서 해와 이간자와 아담 이간자가 소
사에서 나왔어요? 저 서울에서 나왔어요? 소사에서
나왔죠?

동방에서 나오는 진인은 이슬을 들고 나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참으로 하
나님의 지혜야말로 그야말로 오묘하고 깊고 넓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그
대로 처음 나오시는 분들, 새로 나오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이 사
람이 바라는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나고 이 복을
못 받는다면, 이 복을 못 받으면 틀림없이 공동
묘지로 가고, 땅속에 들어간다. 땅속에 들어가
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나서
계속해서 나오기만 나오면 안 죽게 된다.

그래서 안 죽을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기
가족도 다 안 죽는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다 이
복을 받아가지고 영원무궁토록 살아야. 우리
살아있는 사람 속에 돌아가신 조상들의 피가
있죠? 조상들의 피가 조상들의 영혼이요? 사람
의 마음이란 영이다. 마음이란 피의 작용이다.
그래서 조상님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후손 속에
있는 고로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몸이 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조상님
들의 영혼이 다 살았다가 된다. 죽지 않는다가
된다. 그래서 조상님들의 영혼들이 승리제단에
와서 정도령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영원무궁토
록 사는 몸이 되기를 조상님들의 영혼들이 바
라고 기다린다. 그러면 조상님들에게 효도하려
면 여기 열심히 나오셔야 될까? 가끔 나와야 될
까요? 열심히 나와야 조상님들에게 효도하는
거죠?*

1991년 1월6일 주님 말씀 중에서